生態的 環境復元設計에 關한 現象學的 考察
- 마틴 하이데거의 現象學을 中心으로 -

邊 宇 一

新丘專門大學 造景科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cological Restoration Design of Human Environment
: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Martin Heidegger's Phenomenology

Byeon, Woo-I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hin Gu College

ABSTRACT

Today most landscape architects and scientists have approached ecological restoration, only in a scientific way or on aesthetic way so as to deal with the complex phenomena of a site easily. However, 'the real world' as well as 'ecological nature' as it is can not be totally dealt by the scientific approach which is quantitative and reductional. Since a site to be restored has the character of 'place' where man 'dwells', it must be designed and built as total phenomenon. In terms of Martin Heidegger's interpretation of "revealing", we might find out how to overcome the dilemma of the 'modern technology'. To the point of the phenomenological integrity between 'modern technology' and 'art', we can reveal 'sense of place' on a site.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which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implies something more than scientific since it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ite-specific data without wasting extra data for ecological restoration. Bodily experiencing a site with the perception, man discloses the site's nature and he also analyzes it in a scientific way. Therefore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might be a clue of constructing ecological restoration as well as construing the identity of landscape architecture.

Ⅰ. 序論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기술(technology)'은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우리는 테크네에서 두 가지 의미인, 수공업자의 제작과 행위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것까지도 포괄됨을 알아야 한다. 이는 테크네가 산출뿐 아니라 시적인 어떤 것, 즉 '포이에시스(poiesis; something poetic)'에 귀속되기 때문이다.……기술은 결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진실이 현성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탈은폐(revealing)"의 한 방식이다.[1]

종합 과학 예술을 표방한 조경 분야가 이 땅에 정착한 이래 그 실무 영역과 학문적 정의조차도 완전히 정착될 겨를도 없이, 오늘날의 조경가들은 산업화 시대의 부산물인 환경악화 및 생물 서식처 감소 문제 등을 치유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인간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여러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조율해야 하는 조경가의 이상적 역할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유사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경가는 '생태적 환경복원'[2] 설계와 이에 관련되는 전체 공정에 관여하면서 다방면의 전문가들-생태학자 및 자연과학자, 예술가, 토목 기술자, 그리고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 등-과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통해 총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생태적 환경복원설계의 수행에 있어서, 조경가들은 '종합과학예술'이라는 조경의 영역 내에서 각기 분야를 세분화 시키고 있으나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설계 철학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못한 조경분야의 분화현상은 각 분야의 전문성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설계를 수행할 때 조차도 각각의 분화된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각 분야간의 협조에 의한 조화를 이룬 작품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론과 실무의 이원화나 계획과 설계의 이원화는 물론, 근래들어 조경의 핵심적 대상으로 등장한 생태학과 예술성간의 극단적인 이원화 현상으로 인해 조경영역의 독자성 확보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생태학 및 과학 기술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한편으로는 생태적 원리와는 무관한 심미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 생태적 환경복원 설계의 작품 경향을 흔히 볼 수 있다. 조경가는 작품 성격에 따라, 때로는 과학자로, 때로는 예술가로, 때로는 기술자로서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조경' 자체의 평가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외곽적인 존재 정도로 인정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최근들어 기존의 고유한 조경적 영역마저도 관련법규 개정 등을 통하여 기득권을 가진 인근 분야에 의해 침해되려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경의 고유한 철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현실과 유리된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경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유사 분야를 통찰할 수 있는 조경적 사유의 출발점은 없는 것인가? 특히 오늘날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생태적 환경복원설계에 있어서 생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과 예술적 특성이 서로 조화 될 수 있는 '종합 과학 예술'로서의 조경 철학은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본 논문은 오늘날 과학적 접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적 환경복원설계를 현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고찰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과학적 접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여

---

1) Martin Heidegger(1977),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Basic Writings, edited by David Farrell Krell, New York:HarperCollins Publishers: 294-295에서 인용, '탈은폐'에 관해서는 Ⅳ장 1절 참조. Martin Heidegger(1889-1976): 독일의 현대 철학자로서 실존철학 및 현상학의 대표자이며 공간과 관련되는 분야의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본고와 관련되는 그의 철학은 Ⅱ장 참조.

2) 자세한 정의 규정은 Ⅱ장 1절 참조.

예술적 측면과 조화될 수 있는 지를 규명 함으로써 생태적 환경복원 설계시에 그 사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硏究 方法 및 範圍

본 논문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환경의 복합적인 현상을 단순화시켜 실험과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검증해 나가는 분석적 입장과는 달리 정성적이고 해석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생태적 환경복원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의미를 기존의 관련 연구사를 통해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봄으로써 본 논문의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

제Ⅲ장에서는 오늘날 조경분야에 주요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태적 환경복원설계의 이론적 배경 및 그 조경적 영역을 규명하며 현상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3]을 통해 '기술'과 '현대기술'이 본질적으로 다른점을 규명하고, 이러한 '현대기술'을 극복함으로써 현상학적 접근의 실천적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하이데거의 깊은 철학적 사유-존재론적 탈은폐 개념-를 통해 현대의 기술 지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현대기술이 어떻게 예술과 장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Ⅴ장에서는 Ⅲ, Ⅵ장의 논거를 통하여 생태적 환경복원설계를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유사사례나 적용가능성에 관한 간단한 제시와 함께, 이러한 결과가 기존의 과학적 접근 방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를 결과론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현상학의 총체적이고 정성적 원리가 어떻게 현대 과학기술의 분석적이고 정량적 측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를 본질적으로 살펴 보았다.

각 장에서 이루어지는 철학적 개념의 대상과 그 규명을 위한 시도는 이와 관련된 필자의 조경 실무수행의 체험적 사례를 통해 이루어진 고민들의 결실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된 범위는 생태적 환경복원의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실천적 적용가능성의 구체적 예시에 앞서 그 적용의 필요성과 실천적 타당성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철학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임을 밝힌다.

Ⅱ. 現象學的 接近에 對한 考察.

'장소'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는 장소를 중심으로 '실존'의 대상을 해석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현대 실존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는 철학이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훗설(Edmund Husserl)이 말하는 바와같이 '의식(conciousness)'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인 '현존재(dasein)'[4]이며 더 나아가 '존재일반'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철학은 '현존재'의 현상이며 현존재의 존재이해를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그의 존재론적 '거주(dwelling)' 개념은 건축, 지리, 도시, 조경분야 등의 현상학적 접근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필자는 생태적 환경복원을 위한 사유의 근원을 찾기 위해, 하이데거의 '기술'과 '예술' 등의 사유 기반이 '현존재'의 기반인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Noberg-Schulz는 현대의 건축, 조경 등 공간을 다루는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축 이론가로서, 그의 현상학적 이론의 중심에 하이데거가 있음을 피력하였다.[6] Noberg-Schulz는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존

3) 하이데거에 의해 구축된 해석학적 방법에 의한 현상학으로서, 그의 현상학적 존재론이 '현존재(인간)'의 해석을 통해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밝히려 하기 때문에 명명됨. 과거의 유물, 특히 문서의 기술적 이해를 가리켜 '해석'이라고 하며 해석의 이론을 '해석학'이라고 한다. 종로서적 편집부(1993), 『철학소사전』, 서울:종로서적: 221 의 용어 정의 참조.

4) 그러므로 실존주의는 현상학의 대상이되며 현상학은 그 방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자세한 정의는 위의 책: 220, 226, 231 참조

재적 기반(existential foothold)'이 '거주(dwelling)'의 개념과 유사함을 찾게 되었고, 거주야말로 실존적 의미에서 건축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인간에게 있어 거주란 스스로를 환경에 정위(定位)시키고 환경과 동일화 시키는 등 환경을 의미있는 것으로 경험하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주는 서식처(habitat)이상의 개념으로서, "장소(place)"란 개념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장소란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일종의 생활공간(space)을 뜻한다고 지적하면서, 건축가들은 이러한 의미있는 '장소'를 창조하여 인간에게 '거주'를 돕도록 해야함을 밝혔다.[7]

한편, 렐프(Relph)나 튜안(Tuan) 등의 지리학자들은 문화적 경관의 복잡하고 다양함을 총체적 입장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경관에 내재된 의미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읽으려는 정성적 측면의 접근방법으로 현상학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실용적 목적으로 경관을 연구 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관을 보는 새로운 측면"[8]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현상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많지는 않아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김(1977)의 논문과 같이 우리의 전통공간을 서구에서 만들어진 현상학적 장소성을 통해 규명하려는 작업이 꽤 오래전에 시도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9]

조경분야에서는 조경적 외부공간이 현상학의 장소성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분야보다도 더욱 이론과 실무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경부문에서의 현상학적 접근과 고려는 80년대 후반에 이규목(1988)과 임승빈(1988)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1988)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과학적 실증주의와 실존현상학적 접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상호 보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또한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경관의 내부성과 외부성 등을 소개하며 현상학적 접근을 꾸준히 시도하였다.[10] 임(1988)은 경관평가방법의 한 분류로서 현상학적 접근을 소개하고, 경관의 총체적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현상학적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기존의 과학적 분석기법을 보완할 수 있는 현상학적 방법론[11]을 소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고(1988)는 현재의 형식 미학적인 측면이 현상학적 미학과 접목되어 생태적인 미학으로 가는 파라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그는 실증주의적 장점과 현상학적 장점을 조합한 이상적인 결과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12]

이와같은 현상학에 관한 선행사례가 본고의 논리전개의 출발점이 되었으나, 필자가 하이데거의 사유로 직접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는 첫째, 현상학이 지닌 본질적 측면을 보다 깊게 고찰함으로써 조경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둘째, 다음과 같은 선행사례가 남긴 과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1988)의 경

6) Norberg-Schulz는 특히 그의 책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의 서문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없었더라면 책이 완성될 수 없었음을 기술하였다.

7) Norberg-Schulz, C.(1980),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 5.

8) 임승빈(1988), "경관분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6(1): 48.에서 인용

9) 예로써 1977년에 김광현의 서울대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Merleau-Ponty의 현상학으로 조명한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론적 장소성에 관한 연구"에서 저자는 현상학이 순수의식의 본질기술학임을 밝히며 우리와 서구의 相違를 현상학으로 구명하려 하였다.

10) 이규목(1988),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4(1):35-45. 참조.

11) 전문가의 경험적 고찰, 개방적 인터뷰, 분류법 및 다차원기법 등이다. 임승빈, 위의책: 49-51. 참조

12) Koh, Jusuck(1988), "An Ecological Aesthetic", Landscape Journal 2, Madison:the U. of Wisconsin Press: 177-191.참조.

우, 현단계에서는 현상학의 방법적 적용 보다는 환경의 비인간화에서 진솔한 삶의 현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현상학적 접근의 조경적 실천에 대한 한계를 일부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임(1988)은 기존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중심에 두고 현상학적 장점을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보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므로 현상학에 뿌리를 둔 접근으로서의 향후 과제를 남기고 있다. 임(1988)은 박이문의 "현상학이란 의식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대상이 의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현상학적 정의와 더불어, "현상학이 인문사회과학의 방법으로 채택될 때 현상학은 철학적 앎의 방법임을 그치고 과학적 앎의 방법론으로 전락한다."[13]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현상학이 인문사회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는 있으나, 인문사회과학이나 경관평가에서 언급되는 현상학은 '본래의 현상학'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14] 또한 고(1988)는 경험과학이 아닌 본질학인 현상학을 미학적(aesthetic) 차원에서 그 장점만 결과론적으로 도출 하였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본질적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표 1 참조〉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검토할 때 '현상학적 접근'에 있어서 '현상학'을 "본질적"으로 해석하여, 과학기술과 예술이 조화됨을 보일 수 있는 조경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상학은 그 자체가 본질기술학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개별적 장점만 취합하는 것으로는 이미 그 설득력을 잃게되어, 원래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현대기술은 인간에게 많은 이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다 하더라도 현대 기술의 실증주의적 입장과 상반된 위치에 있는 듯한

〈표1〉 본 논문관련 주요 연구사 특성 및 과제

연구자	관련 특성	적용성 검토
Martin Heidegger	'현존재'에 의해 존재의미 규명	-해석학적 현상학을 주창, -기술, 예술, 장소 등 조경적 활용요소 규명
Norberg-Schulz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존재기반이 '장소'를 암시하는 '거주'의 개념과 유사함을 밝힘	-건축을 중심으로한 공간이론 구축, 조경적 적용에 대한 근원적 검토필요 -적용적 측면 보다는 의미를 밝힘으로써 현상학적 장소론의 기반을 제공
Relph, Tuan 등	문화적 경관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총체적 측면에서 밝히려 함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이므로 조경적 적용에 대한 근원적 사유가 요구됨
이규목	환경에 대한 인간의 복잡한 반응을 단순화하는 실증주의의 보완으로 현상학적 접근을 소개, 발전시킴	-현상학과 실증주의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보완적 적용 주장 -조경적 적용에 대한 근원적 사유 요구됨
임승빈	경관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상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 하며, 실증주의적 접근을 중심에 두고 현상학을 보완적으로 활용	-실증주의와 현상학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보완적 적용 주장 -조경적 적용에 대한 근원적 사유 요구됨
고주석	생태학적 미학으로 형식미학적 접근이 현상학적 미학과 접목됨을 주장	-현상학에 기반을 둔 본질적 검토필요 - 조경적 적용에 대한 근원적 사유요구

현상학이 그 실천적 설득력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현대기술은 인간의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학문의 전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 조경분야에 있어서도 시공 관리는 물론, 실증주의적 조경계획설계 방법론 등, 실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이다. 오늘날 생태적 환경복원은 대부분 과학적, 실증주의적으로 접근하려 함으로써, 대상지 자연의 본질과 장소성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간과하기 쉽다. 생태적 환경복원에 대해 현상학

13) 박이문의 『현상학과 분석철학』의 글을 임승빈, 위의책:45에서 재인용
14) 임승빈, 위의책:같은 쪽 참조
15) 더욱이 하이데거의 경우 '예술적인 것(the artistic)', 다시말해 '심미적인 것(the aesthetic)'은 '예술의 본질(the essence of art)'과는 전혀다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예술의 본질은 심미적으로(aesthetically)는 찾을 수 없으며, 모든 존재와 같이 존재론적 탈은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Martin Heidegger, op.cit., p. 316. 참조.

적 접근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현상학에서 실존의 대상이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소를 실제현상 그대로 파악하여 현상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총체적 접근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환경설계이론'[16]을 위한 철학적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접근이 지배적인 오늘날의 생태적 환경복원설계에서 현상학적 접근이 실천적 힘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본 고는 '현대기술'의 극복방안을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통해 밝히고, 현대기술이 '예술'과 장소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생태적'으로 향상된 '거주환경' 조성이 '현존재'인 인간에게 얼마나 의미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참고로, 이러한 철학적 규명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평있는 Harper Collins Publishers의 하이데거의 글에 대한 영문 번역,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와 "On the Essence of Technology" 등을 주로 참고 하였다.[17]

Ⅲ. 生態的 環境復元에 關한 理論的 考察

1. 生態的 環境復元의 定義

현상학적 고찰의 주된 대상으로서 "生態的 環境復元"이라는 명명은 필자가 이와 관련된 유사한 명명들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용어 규명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된 연구 대상 범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적, 고건축물, 고미술품 등에 주로 쓰이던 복원(restoration)이라는 용어가 생태학에 자주 활용된 것은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생물과 그 환경에 대한 인간의 극심한 파괴로 말미암아 생물 서식처 감소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생태학자들 사이에서도 생태적인 복원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명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와 생태계 파괴는 지구적 차원의 범세계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생태적 복원에 대한 관심이 "생물학적 보전의 새로운 파라다임(a new paradigm for biological conservation)"[18]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극복되어야할 많은 실질적 문제들을 관련 생태학자들이 지적하게 되었다.[19] 생태복원에 관련되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복원생태(restoration ecology)에 관련되는 개념정의에 관해, 각기 복원지역의 환경과 사업 여건 등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함으로써 개별적 용어의 정의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동감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단편적인 이론적 정의보다는 여러 상황에서 수행되어지는 사업을 통한 개념(idea)을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폐탄광 같이 황폐된 곳을 복구(reclamation)하는 것이며 둘째, 생산성이 떨어진 농업지역, 삼림지역 등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셋째 외래수종 제거 등 보호지에서 보전적 가치(conservation value)를 높이는 것이며, 넷째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생산지로서의 보전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 등 4가지 중 하나의 이유로 인해 복원이 수

16) 임승빈(1988), 위의 책: 44.에서 인용. 또한 그는 현상학적 접근이 환경설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7) 또한 철학적 지식이 얕은 필자가 조경적 적용을 위해, 자칫 비약이 생기거나 용어 선택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하여 국내의 관련 철학 서적들을 참고 하였다. 그 중 철학자 이선일의 글 "기술의 본질과 극복", 그리고 이기상의 "존재진리의 발생사건에서 본 기술 과 예술"은 본 연구의 철학적 정위(定位)를 갖게했던 연구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하이데거와 관련된 현상학회는 물론 '하이데거 학회'에서 출간된 자료들을 통해, 현대 철학사에서 하이데거가 갖는 독보적 위치를 알게 되었다.

18) Jordan, W.R., Ⅲ.(1994) 등이 새로운 환경 파라다임으로서 생태적 복원(ecological restoration)을 제시

19) Loucks, O. L. (1994), "Art and Insight in remnant Native Ecosystem", *Beyond Preservation: Restoring and Inventing Landscap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127-135. 참조.

행되어 진다고 보았다.[20] 이를 기반으로 필자는 생태적 복원의 개념이 크게 복구(reclamation), 재생(rehabilitation), 보전(conservation)이라는 세가지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며,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호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한편, 생태적 복원의 용어에서 복원이라는 개념만 보면 창조의 의미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연못이 전혀 없었던 공간에 연못을 파서 생물종을 다양화시키는 창조적인 경우에도 우리는 생태적 복원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생태적 복원의 개념을 황폐화된 특정공간의 생태적 원형을 복원하는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파괴된 지구적 차원, 또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보상적 의미로 본다.[21]

최근에 조경인이 주로 참여 하고있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나 지구적 차원에서 파괴된 생태계 및 환경 복원을 위한 생물종 다양성 보전의 사업 등에서도 대상지의 고유한 원형을 고스란히 복원하기보다는 '창조적 측면'에서의 생태적 복원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조경가들이 주로 관여하는 생태적 복원의 대상은 대상지를 중심으로 창조적 의미의 복원이 복구, 재생, 보전 등과 어우러져 수행될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는 경우이다. 생태적 측면에서의 생물 종, 구조, 기능 등은 장소의 특성마다 다르며 인간이 끼친 영향 또한 대상지에 따라 다름으로, 이에 따른 복원 방법도 달라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태적 복원에 있어, 특정 장소의 복합적이고 총체적 특성을 단순히 과학적 실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적 환경복원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미의 경우, 아직 가용하지 않은 자연 자원까지도 포함하는 등 광대한 스케일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생태적 환경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비교적 우리 나라와 유사한 선진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 도시화 영향으로 인해 생태적으로 단조로워진 하천의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자연형 호안 처리를 시행하며 생태연못 조성 및 '비오토프(biotope)'[22] 조성 등을 통해 도시 내에 생물 서식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변생태의 생태적 환경복원 기법을 독일 등에서 수입하여 기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수환경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사업이 적용되는 각지역의 인문적인 환경까지 총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23] 進士五十八의 경우 도시에서의 "자연환경복원"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도시와 자연', '인공과 자연'의 전체적 균형과 공존 공생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4P 1D를 주장하였다. 4P 1D란, 첫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도시와 자연이 공생하는 理念(philosophy)의 설정, 둘째 생태도시의 환경시책을 총합적으로 전개하는 施策(policy), 셋째 도시와 자연 공생 계획 등을 추진하는 計劃(plan), 넷째 생태적 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다섯 번째 자연환경복원의 技術的 方法(design)을 의미한다

20) Hobbs, R.J. & Norton, D.A.(1966),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toration Ecology", *Restoration Ecology*, June 1996, Blackwell Sci. Inc.: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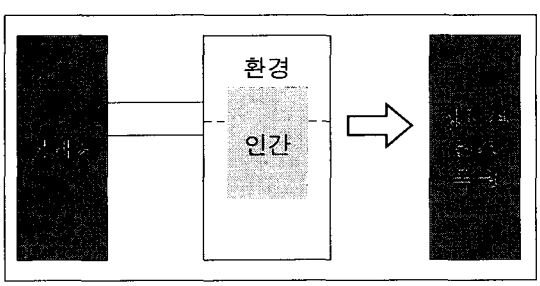
21) 이의 연장 선상에서,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만들어진 쓸모없는 쓰레기 매립지를 잔디구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소극적 개념에서의 복원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2) 김귀곤(1997), 「도시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생물서식공간조성기술의 개발」, 연구보고: 38-41 참조하면, 영문자 바이오토프(biotope)의 어원은 bio(생물)+topos(장소)의 결합어로서 생물이 살고 있는 장소를 지칭한다. "생물 서식 공간"이라 정의되는 비오토프란 용어는 독일 생물학자Dahl에 의해 1908년 독일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유럽과 일본에서 자연보호와 복원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다.

23) 이를 위해서는 龜山 章(1993), "水邊の リハビリテ ションの 視點", 水邊の Rehabilitation, 東京: Soft Science, Inc.:1-16. 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고 하였다.[24] 이상의 단계 중, 다섯 번째의 자연환경 복원의 기술적 방법(design)에 관련된 단계가 조경분야의 역할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본다. 그러나 기술적 수행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려면, 첫 번째 단계인 근본 철학(philosophy)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은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이나 환경복원(environmental restoration)[25] 그리고 자연환경복원 등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불려져, 그 용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어떤 대상지에서 생태적 환경복원을 수행할 경우, 자연 과학자들은 자연과학적 측면에 밀접한 개념인 '생태계'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26] 인문사회학자 및 예술가들은 주로 인간을 둘러싼 서식처 개념인 '환경' 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통상 우리들이 '생태학자'라든가 '환경예술가'라고 하는 명칭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합과학 예술을 지향해온 조경분야는 위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왔다고 볼 수 있다.[27] 어떤 장소에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해야함으로, '생태적' 측면과 인간 '환경'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생태적 환경복원"이라는 용어를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과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는 생태적 환경복원 개념을 〈그림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1〉 생태적 환경복원 정의에 대한 개념도

2. 生態的 環境復元에 對한 實證的 接近方法의 限界

본 절에서는 과학적 접근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미 우리에게 생태적 접근방법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Ian McHarg의 접근을 예로 들어 오늘날의 생태적 환경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실증주의적 접근의 유용성과 극복되어야 할 한계를 환기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조경학자 Ian McHarg가 펜실베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을 중심으로 식생, 지질, 토양, 야생동물, 수문 등과 관련된 자연과학자들 및 생태학자들과 함께 구축한 광역적 생태 복원에 관한 많은 이론과 실제 사례가 있다. 기술시대의 가속화와 환경문제의 악화로 말미암아, 이들의 생태적 접근 방법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보급되어 오늘날 우리 나라의 조경계획 방법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McHarg는 인간이 다루고자하는 경관의 물리적 형태는 '자연형성과정'[28]을 지배하는 생태적 제현상에 의해 좌우되므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찾아야한다는 '생태적결정론'으로 그의 적지분석의 방법론적 기반

24) 進士五十八(1992), "自然と都市の共生計劃", 自然環境復元の技術, 東京: 朝倉書店:)9-24. 참고.
25) Nikita Lopoukhine(1996), "생태적 복원", 『환경과 조경』, 서울:환경과 조경사: 155.참조
26) 물론 Odum, Eugene, Basic Ecology, Philadelphia: Saunders College Publishing: 1.에서의 "생물과 생물의 상호작용 및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같은 생태학 정의 처럼 자연과학자가 '환경'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생물을 둘러싼 환경 개념이지 인간을 중심으로한 서식처의 개념은 아니다.
27) 예를 들어, 서울대 조경학과 대학원의 경우, 본 대학원의 '생태' 조경학과와 환경대학원의 '환경' 조경학과의 둘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28) 자연이 끊임없이 변화, 생성하는 이면에는 여러종류의 생태적 인자들이 작용하며, 이러한 인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론.

을 구축하였다.[29] 이를 통해, 그는 광역적 생태 복원에 있어서 생태학자들을 총괄하는 조경가로서의 역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생태적 데이터의 조경적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도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확신하는 과학적, 실증주의적 방법론에서 개선되어야 할 한계점이 내포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증주의에 입각한 실천적 방법론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고에서는 McHarg가 이러한 방법론을 배태한 사유에서 극복되어야 할 사항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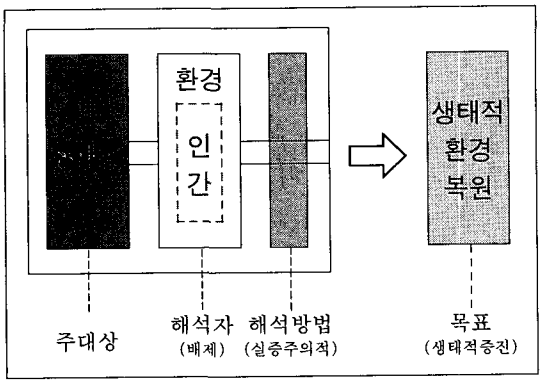
첫째, 분석적으로 쪼개진 생태적 인자들의 합이 대상지의 자연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쪼개진 항아리를 모아 합한다고 원래의 항아리의 형태나 속성이 만들어지겠는가? 이는 기술 지배시대의 실증주의적 확신에서 간과해온, 자연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자연의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자연을 쪼개서 분석하는 것이 애매한 상태에서의 총체적 이해보다도 편리한 방법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방법만이 자연을 이해하는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고, 과학적 접근의 한계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실증주의에 의한 환원주의적 접근은 생태적 환경복원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를 남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연 생태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대한 가치를 세우려면 자연 생태계 그 자체가 가지는 이상적 모델(desirable model)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연의 원형(indigenous model)에서 찾고자 할 경우, 과연 자연의 원형은 존재하는가? 인간의 영향이 없는 곳에 그 원형이 있다하더라도, 인간의 영향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 그것이 황폐한 곳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연의 원형(indigenous model)이 무엇인지 모르듯이, 자연 그 자체의 이상적 모델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할만한 자연의 절대적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생태적 환경복원의 목표를 정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또한 자연의 모델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인간이 있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절대적 모델은 없다는 사실에 겸손해져야 할 것이며 인간이 생태적인 것에 대해 어떤 식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생태적 윤리(ecological ethic)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수많은 환경규제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만 받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오염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생태적 윤리를 주장하는 또 한편에서는 극심한 개발에 의한 파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강하게 주장해서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나, 생태적 환경 복원이 대중적 처방으로서의 실천적 힘을 갖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자연 생태계를 대하는 인간 모두가 윤리적 측면을 강요받는 것은, 결국 개인적 바램과는 상충되는 내적 갈등이 잠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경계획설계에서의 보다 설득력 있는 사유의 출발은, 인간-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이 생태계를 풍부하게 향상시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본 장 1절의 〈그림 1〉에서 〈그림 2〉와 같은 개념도를 도출시켜 보았다. 이 개념도에서 처럼 생태적 환경복원의 '목표'는 그 '해석의 방법'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다. 해석의 방법이 과학적, 실증주의적 접근에서는 환경의 '해석자'인 '인간'을 배제하고 주대상인 '생태계'만을 그 사유의 출발선상에 둠으로써, 단순한 "생태적 증진"이 우선적 목표이다. 이 경우, 파괴된 생태계의 치유적 측면에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장소를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목표를 지닌 생태적 환경 복원

29) 1991년 가을학기, 펜실베니아 대학원 조경학과 501 스튜디오 강의노트에 근거함.

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사유의 근원적 점검이 요구된다.



〈그림2〉 실증주의적 접근에 의한 생태적 환경복원의 개념도.
'인간'을 배제하고 '생태계'만을 주 대상으로 하여, '생태적 증진'이라는 목표만을 달성하려는 "과학적 접근방법"의 전형. '해석방법'에 따른 '목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3. 實務的 經驗의 理論的 考察

이 절에서는 앞에서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국내에서 최근에 수행된 생태적 환경복원 사례를 살펴보고, 생태적 환경복원을 위해 설득력 있는 접근방법을 찾고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는 측면에서, 필자의 최근 실무 경험을 토대로 논거를 전개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본격적인 의미에서 생태적 환경복원이 실제 완공된 사례는 거의 없고, 최근들어 관련 계획의 수립과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참여한 바 있는「댐 및 하구둑 환경 정비 계획」[30]의 경우도 최근에 계획된 관련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댐 시공 당시 훼손된 채로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31]하며 인근 시민들에게 친수환경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었다. 조경계획가, 생태학자, 그리고 토목 기술자 등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서, 조경가는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복원 방향을 관계 생태학자들과 협의 결정하고, 국내의 부족한 관련 기초 과학 데이터를 얻고자 대상지에서 필요한 식생, 수생식물, 조류, 곤충 등의 조사를 위한 관련 생태분야 전문가 및 자연과학자들을 선정하고, 이들로 부터 조사된 자료를 계획 가능한 형태로 해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수리, 구조물 등의 토목 전문가들과 새로운 생태적 공법의 안정성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근 시민들의 친수환경 및 친 자연형 휴식처 제공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장소를 대상으로 자연생태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며 계획, 설계과정을 수행하는 조경가는 생태학자, 공학기술자, 예술가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서 있으나, 수행과정을 받쳐줄 수 있는 철학이 부재하여 일관된 입장과 접근방식을 고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총괄적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진행방향을 상실할 경우, 작품의 일관성을 잃게되며, 계획설계 시에는 활용 가치가 없는 수많은 생태적 데이터들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시공단계에서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을 낳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소의 특성에 맞고, 생태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을 이끌 수 있는 조경적 철학과 이론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32]

이상의 생태적 환경복원 사례를 살펴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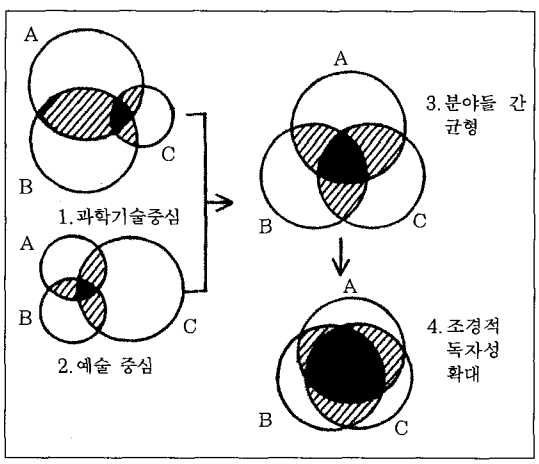
30) 박종화(1996),「댐 및 하구둑 환경 정비 계획」, 학술용역보고, 1996년 5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 서울대에서 수행되었으며, 대청댐, 안동댐, 낙동강의 3개 지역의 댐 주변의 훼손된 생태계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며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계획이었다. 박종화, 양병이, 양윤재, 김귀곤, 안동만, 변우일, 이도원, 김정욱, 변문기, 송보영, 이우신 등 주로 조경학자 및 생태학자가 본 프로젝트의 연구위원으로 편성되었다.

31) 여기서의 복원은 과거의 원형을 되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원래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되 본장 1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새로운 생물서식처(Biotope 조성 등)를 '창조'하는 복원의 개념이다.

32) 물론, 거의 개척 단계에 있는 생태적 환경복원 수행 단계에서 기초 데이터 부족 및 일반적 프로젝트 보다도 훨씬 더 여유없는 작품완성기간의 독려 등, 실로 전문가들이 풀기에 어려운 여건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뚜렷한 공간 철학을 가진다면, 외적 문제를 제외한 전문적인 문제들은 경험을 통해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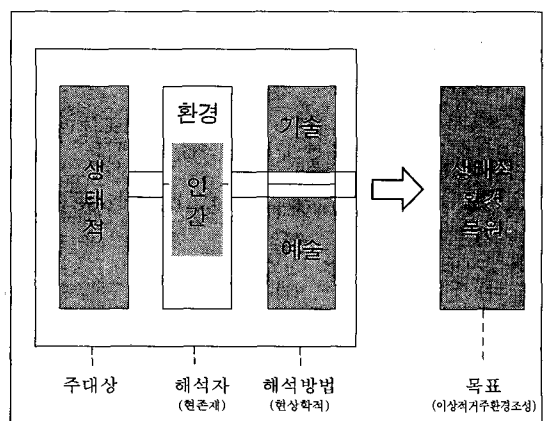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생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특성이나 대상지 특성에 따라 그 접근방법이나 결과물이 달리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참여 전문가들은 대개 조경가, 생태학자, 관련 기술자, 그리고 환경예술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들 중 조경가는 자연 생태적 측면과 예술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간 계획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전체 전문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생태적 환경복원은 생태학이 중심 되는 과학적 영역과, 이를 실제화 하는 기술적 측면, 그리고 예술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은 생태적 환경복원에 대한 세 가지 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도 이다. 이들 영역간 공유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빗금친 부분과 흑색 면은 전체과정의 진행자로서 조경가의 주된 업무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흑색 면은 작품 결과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종합과학 예술적 특성을 지닌다. 각 분야간의 중복 범위가 넓을수록 조경적 독자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 나라는 그림 속에 '단계1'의 '과학기술 중심'의 작품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단계2'에서 '예술적 본질'을 찾고 '단계3'에서 각 분야가 통합되어, 조경적 독자성이 풍부한 '단계4'의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종합과학예술로서의 생태적 환경복원설계를 지휘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3〉 생태적 환경복원에서 세 가지 영역간의 관계에 관한 개념도. A: 과학적 영역, B: 기술적 영역, C: 예술적 영역 ▨두 영역이 공유, ▩세 가지 영역이 공유됨을 표시함

〈그림4〉는 생태적 환경복원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초기화 모델'이다. 조경가로서 생태적 원리를 포괄한 종합 과학적 이해를 통해 각 장소의 특성에 맞게 기술성과 예술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생태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간의 이상적인 거주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기술과 예술 및 장소적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는 현상학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상학은 본질 기술학이기에 단순히 그 용어의 소개나 이해를 통한 보완적 활용 정도로는 설득력을 잃기 쉽다. 그러므로 다음 Ⅳ장에서는 생태적 환경복원에서 현상학적 접근이 그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기술'과 '예술'을 본질적으로 규명하며, '기술'과 본질적으로 다른 '현대기술'이 현상학적 지배원리에서 어떻게 개선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림4〉의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해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사유함으로써, 현상



〈그림4〉 생태적 환경복원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초기화 모델

학적 접근방법의 생태적 환경복원을 위한 보다 설득력 있는 최종 개념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Ⅳ. 技術과 藝術의 現象學的 本質

1. 技術과 藝術의 本質

이 절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생태적 환경복원설계에서 과학기술 만능의 발상을 바꾸는 기초 작업으로써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통해 규명하고, '기술'이 본질적으로 '예술'과 어떻게 밀접한지를 보이고자 한다.[33]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을 밝히고자 우리들이 '기술'에 대해 내리는 통상적 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규정안에 감추어져 있는 기술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34] 그는 '기술의 본질'이란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기술적인 것'을 가능케 해 주는 은닉된 근거라고 보면서 기술이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탈은폐(revealing)'의 한 방식"[35]이라고 말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탈은폐하는 사건'에서 '탈은폐'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수공의 제작품들, 예술적 창작품들, 그리고 자연적인 존재자까지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또한 하이데거는 "본질적으로 산출(bringing-forth)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수공업적 제작이나 예술, 아니면 "피지스(physis)"[36]이든 그 산출은 은폐된 것을 비은폐된 것으로 '탈은폐'할 경우에만 일어난다고 답하고 있다.

기술(technology)의 탈은폐적 의미를 재입증하고자 하이데거는 기술이라는 용어를 그리스어 테크네(τεκνη:techne)로 소급하였다. 하이데거는 테크네의 근원적 의미를 단순히 제작행위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수공적, 예술적, 또는 정신적인 것과 상통한다고 보며, 이는 어떤 것에 정통해 있음을 뜻하는 일종의 인식개념으로 보았다. 이것은 어떤 것의 생산에 관여된 제작적 인식이므로 학적 인식인 에피스테메(episteme)와 구분되며, 그 사용 기원이 플라톤(Plato)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테크네는 "일종의 앎으로서, 산출함이라는 앎의 수행 방식에서 존재자 그 자체를 열어 밝히는 것"[37]이라고 하며, '열어 밝힘'으로서 테크네의 본질은 '탈은폐'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테크네의 어원을 통해 볼 때, '기술의 본질'은 결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탈은폐의 한 방식'이며, 탈은폐와 비은폐가 즉, '진리'[38]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현성한다고 볼 수 있다.[39]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적 규정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본질에 있어서도 예술가의 창의적

---

33) 규명과정에 있어 필자의 철학적설명이 조경분야의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것은, 정신세계의 복잡한 실타레를 풀어야만 이해되는 해석의 단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인간이 가진 관념세계를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인간 언어에 대한 한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래 규명된 의미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본래 의미를 끄집어 내서 조경적으로 응용하는 것보다 현상학의 본질적 의미의 변형을 막을 것이며, 독자들에게 정당한 판단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4) Martin Heidegger, *op.cit.*, p. 287 참조.

35) 이기상 (1996), "존재진리의 발생사건에서 본 기술 과 예술", 『하이데거 철학의 근본 문제』, 서울: 철학과 현실사: 384-385 참조하여 Martin Heidegger(1962), 『*Die Technik und die Kehre*』, Pfullingen, 의 원전을 재인용함. 이 탈은폐성에 근거해서 존재자가 인간에게 처음으로 이러저러하게 규정된 존재자로 주어지며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은폐성에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어져 (탈은폐성 안으로) 앞에 옴 (Her -{aus der Verborgenheit}vor-{in die Entborgenheit} kommen)이 모든 탈은폐 방식의 기본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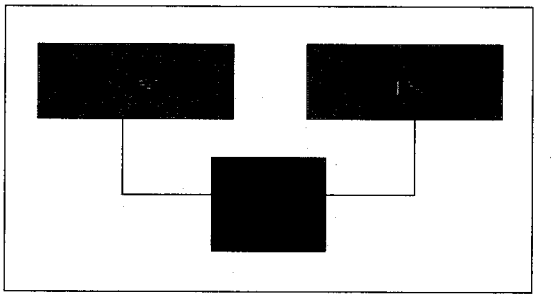
36) 위의 책, 401-402쪽을 참조하면 하이데거 관점에 입각하여 피지스는 테크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며, 이때의 피지스는 통상적인 개념인 정신의 대립 개념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피어오르는 성함", "그 자체에서부터 나와 그 자체 안에서 있음"으로 본다.

37) 위의 책, 400쪽에서 재인용

산물이라는 통상적 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예술적 표현에 전개되고 있는 존재진리의 사건에 주목해야 그 본질적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존주의자 하이데거는 심미적인 미학적 측면에서 벗어나 존재론적 측면에서 예술의 본질을 사유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테크네와 예술의 관계를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그는 테크네가 "시적인 어떤 것으로서 포이에시스(poiesis: something poetic)"[40]라는 의미와 상통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여기서 포이에시스적 탈은폐는, 수공적 제작품이나 예술적 창작품을 밖으로 끄집어 내어놓거나, 자연적으로 현전하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 내어 놓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예술의 사유를 통해, "알레테이아(aletheia)와 피지스(physis)에서 그 이후 망각된 존재의 본질이 비추어 오듯이 테크네 내지 포이에시스에서 망각된 예술의 본질이 빛날 것"[41]이라고 규명함으로써, 결국 기술과 예술이 본질적으로는 상통함을 보였다

우리는 지금껏 하이데거를 통해 존재론적으로 기술과 예술이 통합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아래의 〈그림5〉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원리가 Ⅲ장 〈그림4〉의 개념도에 적용할 경우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장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생태적 환경복원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초기화 모델의 개념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이러한 모델이 주는 생태적 환경복원에 대한 조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기술이 지배되지 않았던 시대에 환경을 다루는 원리를 이



〈그림5〉 기술과 예술의 장소적 통합

러한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영국의 고대 유적인 스톤헨지(stone henge), 중세 유럽의 고딕성당과 조화되는 그 주변환경, 심지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별서정원인 소쇄원 등, 이들은 당시의 축조 및 조영기술과 '예술성'[42]이 장소적으로 융합되어 나타난 걸작들이라고 본다.[43] 그러므로 기술이 지배되지 않았던, 산업사회 이전의 인간은 '생태학'이란 용어를 몰랐어도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생태적 원리를 깨달았고, 자연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과학적, 실증주의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2. 現代技術의 本質과 環境問題

생태적 환경복원에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의 의미가 제시될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실제적 적용단계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다. 이의 주된 원인은 현상학적 측면에서 '기술의

38) Martin Heidegger, *op.cit.*, p. 294 참조. 여기서 '진리'란 탈은폐에 대한 그리스어의 "*aletheia*"와 같은 개념이다. 이 단어가 고대 로마시대에는 "*veritas*"로 번역되었고, 현재는 영문자, "truth"이지만 각각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고 본다. '진실'과 '탈은폐'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Martin Heidegger, "On the Essence of Truth", 같은책, 113-141 쪽 참조할 것

39) *Ibid*, 294-295 참조

40) *Ibid*, 294-295 참조

41) 이기상, 위의 책, 411쪽에서 Gerhard Faden, 〈*Der Schein der Kunst. Zur Heideggers Kritik der Asthetik*〉, Wurzburg 1986, 40쪽 이하의 원전을 재인용

42) 여기서 예술성이라함은 인간의 내면적 감성에 의해 자연의 현상이나 본질을 깨닫고 표현해 내는 시성(詩性)과도 유사한 의미로서, 오늘날의 심미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다고 봄.

43) 물론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예를들어 소쇄원은 동양적인 무위사상을 토대로 조영되었다거나 하는 것 등-는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는 앞의 논거에 의해, 보편적 특성만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본질'이 '현대기술의 본질'과 유사해 보이면서도 존재론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현대기술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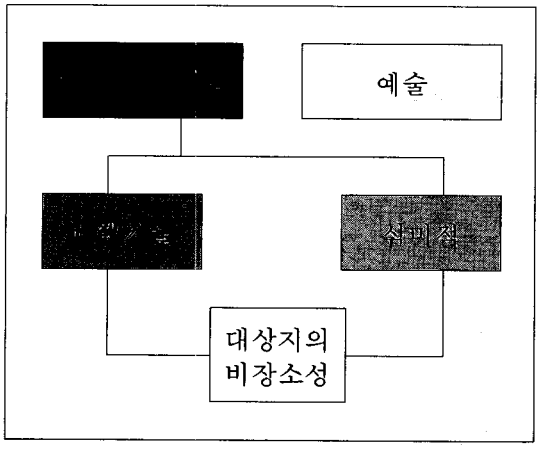
오늘날의 환경파괴나 생태계 문제의 심각성 등, 서구 문명의 핵심인 과학기술의 폐해에 관해 하이데거는 이미 반세기 전에 예견하였다. 당시 그는 현대 기술에 의해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원으로 환원되며, 과학은 이를 표상 하는 방식으로 변모되어 가고, 인간의 내적 본질은 무시되는 위험에 처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하이데거는 자연 에너지를 채굴하라고 인간에게 도발적으로 요구하는 부름에서 '현대기술의 본질'을 파악한다.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적 탈은폐'의 특성을 "몰아세운다(stellen)" 혹은 "도발적 요구(die Herausforderung)"로 규정한다. 현대기술은 주체적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몰아세움으로써 자연은 고유한 의미지평이 파괴되며 하나의 기능으로 탈은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은 에너지원으로 고정되며 대지는 채광장으로, 농토는 식량공급원으로 탈은폐되어 고유한 본질을 잃게된다.[44] 존재론적 측면에 있어서 본 장 1절의 '기술의 본질'인 은폐성에서 비은폐되는 '탈은폐'와는 달리,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본질'이 인간을 '한가지의 탈은폐' 방식으로만 끌어들이는 '몰아세움'이라고 규정한다. '몰아세움'이라는 현대기술의 본질은 자연을 "부품(Bestand)"화 시켰다. 즉, 자연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원료로 탈은폐시켰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의 공원은 고유한 장소적 특성을 망각한 채로 대도시 시민들이 언제나 손쉽게 쓰여지는 '부품'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현대기술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대규모 댐 축조 기술의 경우 고대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모태였다. 홍수로부터 인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상수와 용수 및 전력공급 등의 이수의 기능을 위해 급속도로 기술이 발달된 근 1세기동안 인간은 수많은 댐들을 축조하여 왔다. 인간은 신의 섭리라고만 생각했던 도도하게 흐르는 강줄기를 막고 수문을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로 인해 엄청난 수생태 생태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도시에는 마천루를 세우고 자연의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생태계 파괴에 의해 이제는 자연으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현대기술'에 의해 전력공급원으로 환원되었던 강 주변은 고유한 장소적 본질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댐 축조 전에 강줄기를 따라 거닐며 자연을 노래하던 시인의 정서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림6〉의 개념도를 통해, '현대기술'이 '기술'의 고유한 '탈은폐'적 성격을 상실하고 '몰아세움'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예술'과도 그 존재론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기술시대의 실증주의적 접근의 전형적 모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유한 예술의 본질은 상실되고, 기술지배시대에 편리한 '부품'으로서의 '심미적 측면'만이 '예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또한 시대적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끌려감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측면에서만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상학적 접근이란 근본적으로 원천 봉쇄된 셈이다. 〈그림6〉의 개념을 Ⅲ장 〈그림4〉의 생태적 환경복원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초기화 개념도에 적용해 볼 때, 그 흐름과 결과가 근본적으로 어긋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이 그 실천적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와 같은 '현대기술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상황[46]에서의 현상학적 사례 및 의미만을 적용하려

44) Martin Heidegger, *op. cit.*, p.296-297. 참조.
45) *Ibid*, 298. 참조
46)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술의 본질인 '탈은폐'적 성격이 간직 되었던 현대기술의 이전 시대



〈그림6〉 '현대기술'의 지배하에서 '기술의 본질' 상실과 '예술과의 괴리로 인한 대상지의 장소성 상실

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해석을 통해 볼 때, 이러한 방식의 현상학적 접근은 실증주의적인 측면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과학적 특성과 현상학적 특성이 양분화 되어 기술지배 시대의 실증주의적 접근의 부수적 형태로밖에 머물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3. 現代技術의 克服을 通한 技術과 藝術의 場所的 統合

기술지배 시대에 현상학적 접근이 진정 그 의미를 발할 수 있는 원리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현대기술'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하이데거의 좀 더 깊은 현상학적 사유로 들어가야 겠다.

우리들은 현대기술이 가져다주는 생활의 편리에 안주하면서도 핵폭발의 위험이나 생태계 파괴 등의 위협을 느낀다. 특히 현대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은 인간을 주문 요청의 '탈은폐' 방식으로만 몰아넣기에 현대기술은 '극단적 위험'으로 보여지곤 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기술 자체에 대해서 악한 것으로 폄하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의 본질을 묻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모색하려 하였다.[47] 그는 "기술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현대기술" 문제 극복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형이상학'[48]적 사유는 기술을 단순히 인간의 행위로만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자제하여 기술을 합리적으로 조정, 통제할 때, 인간은 기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이데거에 의하면 '기술의 본질'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목적과 수단 하에 쓰여지는 도구도 아닌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합리적인 통제만으로 오늘날의 기술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현대기술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녕 없는 것일까? 하이데거는 시인 횔더린의 "그러나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saving power)'도 자란다"[49]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단서를 제공한다. 현대 기술의 본질(essence of technology)인 '몰아세움'의 극단적 위험에서 구원의 힘을 붙잡기 위해 하이데거는 "본질(essence)"이라는 단어를 전통적인 형이상적 개념과는 다르게 규정한다. 그는 '본질'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존속한다(währen)'라는 의미와 상통한다고 본다. 그러나 절대자가 아닌 인간에게 있어서 '존속'이란 영원히 존속할 수 없듯이 '본질'도 영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이

47) Martin Heidegger,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Basic Writings*, 307-31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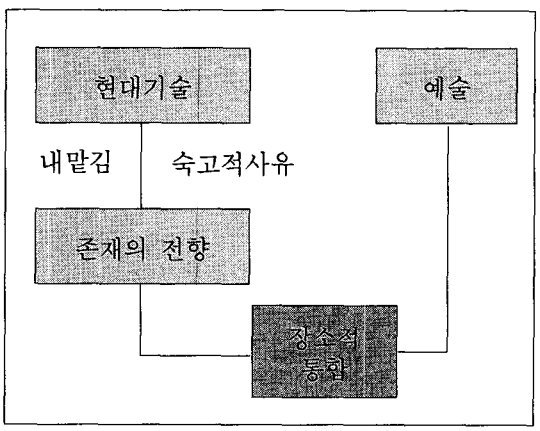
48) 종로서적 편집부, 위의책: 227-228 의 용어 정의 참조. 그리스 어 meta(뒤) 및 physika(자연학)의 결합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형이상학은 궁극적인 존재의 학, 즉 신학이지만 철학사에 있어 형이상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 야스퍼스)는 형이상학을 객체적인 철학에 대해서 객체화될 수 없는 주체성, 자각존재의 철학이라고 보고 있다. 본고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근대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비은폐성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49) Heidegger, *op. cit.*, p. 310. 에서 인용.

'사건'[50]에 의해 부여되었기 때문에 존속한다고 본다. 즉, '사건'은 '부여하는 자(das Gewährende)'이며, '몰아세움'은 '부여된 것(das Gewährte)'이다. 그러므로 '몰아세움'은 '사건'에 의해서 그때마다 역사적으로 다르게 주어진다. 이로써 횔더린의 시에서 처럼, 현대 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에는 '위험'과 동시에 '구원의 힘'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구원의 힘'으로서의 존재가 "존재의 전향"을 통해 자신의 본질로 회복하게 하며, 인간 쪽에게도 자기본질로 귀의하게 한다고 본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은 존재의 한 '역운'[51]이므로 인간 쪽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는 없고 '내맡김의 태도'에 의해 '존재의 전향'을 이룰 때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 '존재의 전향'은 아무런 매개 없이 갑자기 번뜩이며, 위험에 빠진 존재를 자기본질의 참됨으로 획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52] 그러나 인간이 계산적-합리적 사유에만 빠져 있는 경우, 존재의 섬광이 번뜩일 때조차도 그 "그늘 안에 서 있을"[53]뿐이다. '존재의 전향'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에, 인간은 새로운 '역운'의 도래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을 이성의 계산적인 틀에서 측정하지 말고, 존재의 회복을 숙고해야 한다.

그동안 인간은 근대 형이상학의 계산적 사유에 의해 자연을 계산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하려 함으로써 자연의 고유한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기술시대의 '위험'에 처한 자연을 그 본질로 귀의시킬 수 있는 인간의 태도는 '숙고적 사유'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기술시대에 숙고적 사유는 '내맡김의 태도'[54]로 나타난다. '내맡김의 태도'에 의해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술시대의 '부품'들을 사용함으로써 기술시대의 위기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기술'의 극복은 인간의 합리적인 통계나 계산으로만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극단적으로 무시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이데거가 제시한 "존재의 전향"과 이를 기다리는 인간의 "내맡김의 태도"야 말로 '현대기술'을 극복하고 '예술'과 통합될 수 있는 실천적 근원이라고 보여진다.〈그림7 참조〉



〈그림7〉 현대기술의 극복을 통한 기술과 예술의 장소적 통합에 관한 개념도.

위의 개념도를 생태적 환경복원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초기화 개념도인 Ⅲ장의 〈그림4〉에 적용해 볼 때, 기술 영역인 현대기술의 재조정작업을 통해 예술과 장소적으로 통합되는 새로운 개념도를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최종개념도 및 종합적 견해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50) Ibid, 312-313 참조. 후기 하이데거 철학에서 주요개념인 '사건'은 존재자와 관계하는 존재를 그때마다 스스로 부여하는 고유한 것으로 본다. '사건'에 국한된 내용은 이선일, 위의 책, 322쪽 참조.

51) 이기상, 위의 책, 389쪽 참조. 하이데거에 의하면 '역운'은 곧 '몰아보냄(Ge-schick)'이다.

52) 이선일, 위의 책,329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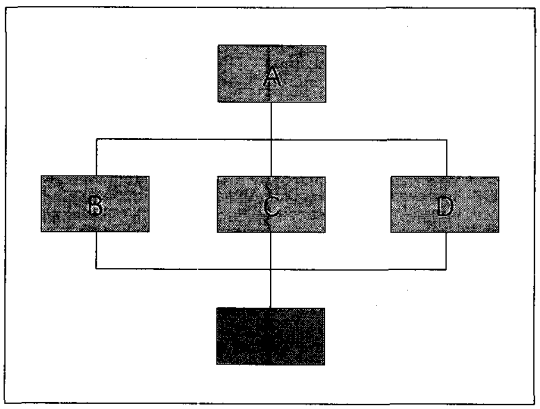
53) 위의 책, 같은 쪽.

54) 위의 책, 325 쪽 참조. 하이데거에 있어서 사물에의 '내맡김'이란, 사물을 가능케 하는 세계의 감추어진 의미에 대해 눈과 귀를 여는 태도로 본다

Ⅴ. 生態的 環境 復元에 關한 現象學的 接近

1. 適用性 檢討 및 類似關聯事例

다음의 〈그림8〉은 생태적 환경복원계획의 과학적 접근 과정의 일반적 사례[55]의 모식도로써, Ⅲ장에서 언급된 바 있는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설정한 목표A를 달성하기 위해 B, C, D 등의 분석을 통해 결과물 E 를 도출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8〉 생태적 환경복원계획의 과학적접근의 분석 과정의 사례 모식도

이러한 접근은 생태적 환경복원사례의 경우뿐만 아니라, 오늘날 조경 분야에서도 흔히 쓰는 방법으로서 기술 시대의 우리는 이러한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의 규정된 틀에 의해 공원, 리조트, 단지 및 도시계획 등을 수행하는 데에 익숙해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공원은 '부품'[56]으로서만 공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공원이 저 공원 같은 천편일률적이고 단조로운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오늘날 조경업체에서 '작품'이란 용어 대신에 '납품'이라는 용어를 흔히 쓰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부품의 납품과 일맥상통 하다고 본다. 이 경우, 우려되는 사항은 자연과 같은 존재자 모두가 그 고유성을 상실하듯이, 그 주체인 조경 전문인도 기술적 의지의 주문요청에 응답하는 "부품으로 전락된다"[57]는 사실이다. 생태적 환경복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상지의 '장소성'은 대부분 상실되며, 유사한 판단 기준으로 대상지마다 다른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게 됨으로써 장소에 맞는 결과물이 산출되기까지 많은 과학적 데이터의 동원과 낭비를 초래해 왔다.

아래의 〈그림9〉은 위의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안적으로 마련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필자가 실제로 리조트 계획 사례 및 생태적 환경복원 계획에 적용한 사례[58]로서 현상학적 접근을 위해 만들어 졌다.[59] 〈그림9〉의 좌측은 〈그림8〉과 같은 실증주의적 접근의 모델과 유사하지만 우측은 정성적이며 총체적으로 대상지를 파악하는 접근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9〉의 모델과 같이 작업을 수행한 결과, 필자는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에서 풀 수 없었던 한계들을 다음과 같이 극복할 수 있었다. 첫째, 대상지의 특성을 '장소성'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60]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서 시시각각 변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읽혀지는 자연의 정성적 측면을 경험할

55) Byeon, Wooil, et al.(1991), *Chatsworth Ecological Planning*, A Report to 501 Studio, led by Ian McHarg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501 Studio: 1-60. 참조

56) 이 경우, '부품'의 의미는 Ⅳ장 2절, 현대기술의 본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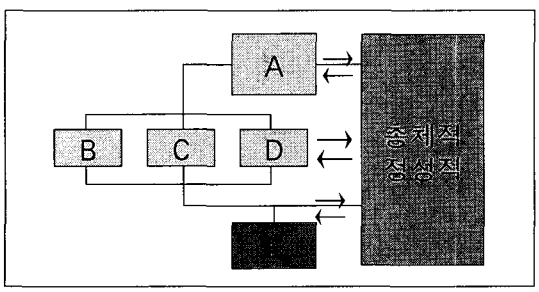
57) 이선일, 위의 책, 310쪽 참조.

58) 1994년 C. P. 골프 및 스키 리조트 계획 수행 시, 필자가 만들어서 사용한 모델이다. 또한, 생태적 환경복원 수행 사례인, 박종화(1996), 같은 연구 보고서 중, "대청댐 환경정비계획 및 시민생태공원 계획 및 설계" 부문에도 적용되었다.

59) 사실 실무 프로젝트 수행시,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에 익숙한 의뢰인들에게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접근과정을 설득시키려면 기존의 방법론을 어느정도 절충된 형태로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림9〉의 모델도 그러한 연유에서 보완적 형태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행 내용은 현상학을 통한 총체적인 시각에서 과학적 분석작업을 이끌어가는 접근이었다.

60)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상지를 현상학적으로 보는 눈과 읽는 방법을 길러야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적 측면의 소개는 본 논문의 범위에서는 무리라고 생각되어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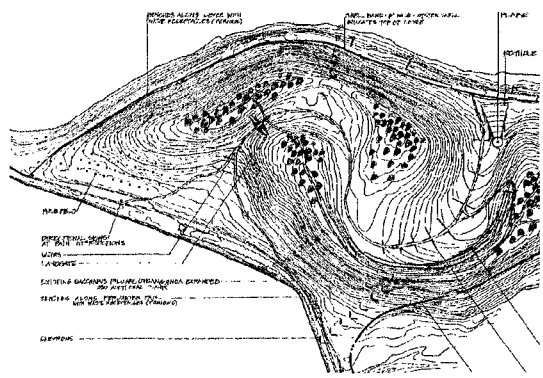
수 있었다. 이것은 비록 과학적 접근방식이 환류(feed back)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분석적 시각에서는 읽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둘째, 대상지의 자연 생태계를 포함하는 장소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그림9〉의 좌측의 B, C, D로 대분된 과학적 접근에서 분석되어야할 데이터의 활용 및 발전 방향이 더욱 선명하게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장소에서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의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더욱 깊이 분석함으로써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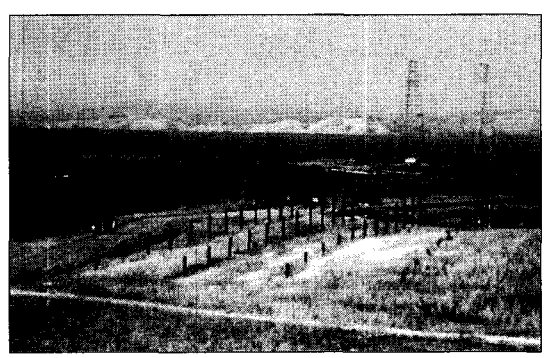


〈그림9〉 생태적 환경복원계획의 과학적접근의 한계와 그 보완적 접근.

우리가 Ⅳ장에서 하이데거를 통해 살펴본 대로, '현대기술'의 극복은 '존재의 전향'을 통해 과학이 '부품'[61]으로 사용될 경우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 사례에서도 입증된 셈이다. 대상지의 사물에 오감을 열고 체험적으로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여 자연의 총체적 현상을 읽고 난 상태에서는 장소적 특성에 맞게 분석 해야할 생태적 요소를 결정하기가 더욱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소는 생태적일 뿐만 아니라 이용객에게도 감명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현대 조경 공간에서 장소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조경가 George Hargreaves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그는 모더니즘 시대의 실증주의에 근거한 과학적,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며 기존의 내향성의 공간관을 바깥세계로 활짝 열고 비, 그림자, 물, 하늘 등의 장소의 자연현상을 조경작품과정에서 중요한 활용 요소로 보려 했다. 그는 "예술이 오늘날의 생태학자와 산업주의자들간의 충돌을 중재하는 원동력이다"[62]라고 하면서, 기능적으로 조성된 오늘날의 환경설계에서 자연의 본질이 간과되





〈그림 10〉 George Hargreaves의 쓰레기 매립지 위에 조성된 Byxbee Park의 평면도(위 사진)와 Pole Field(아래사진). 현대 기술과 예술의 장소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생태적 환경 복원에 대한 조경적 입지를 보여준 사례.
(사진출처: Process: Architecture, 1996. January)

61) 과학 기술이 '부품'이라하여 '전체'에 종속된 존재로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부품은 부품의 속성을 가질 때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2) Beardsley, John(1996), "Entropy and the New Landscapes", *Prrcoss: Architecture*, Vol.128. p.15.에서 인용

었음을 직시하였다. Byxbee Park이라는 작품에서 처럼, 그는 주로 쓰레기 매립지 등 산업화로 인해 버려진 땅의 생태적 환경 복원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George Hargreaves는 작품수행을 통해 자연을 규정짓는 것(framework)보다는 자연 스스로가 세부 내용에 대해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윤곽만을 지어 주려하였고 결과물 그 자체(thing in- itself)보다는 자연의 계속적인 형성과정(ongoing process)에 눈과 귀를 여는 것을 중시하였다. '창조적 측면'[63]에서의 생태적 환경 복원에 임하는 조경가로서 그의 역할은 대상지의 자연에 대해 열린 태도로 자연적인 것-새, 식물 등-들의 무대(setting)를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Byxbee Park의 Pole Field 등의 작품에서 산업화 시대의 부산물들을 조각물의 소재로 활용하는 등, 심미적 특성으로서의 외형추구보다는 그 모티브나 의미를 중요시하며 예술을 통해 현대 기술이 간과한 은닉의 측면까지 열어 보려 하였다. 〈그림 10참조〉

2. 生態的 環境 復元에 關한 現象學的 接近

Norberg-Schulz는 장소(Place)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장소는 정성적(qualitative)이며 "전체적" 현상("total" phenomenon)이다.…… 장소는 복합적인 본성을 지닌, 정성적인 것들의 총체이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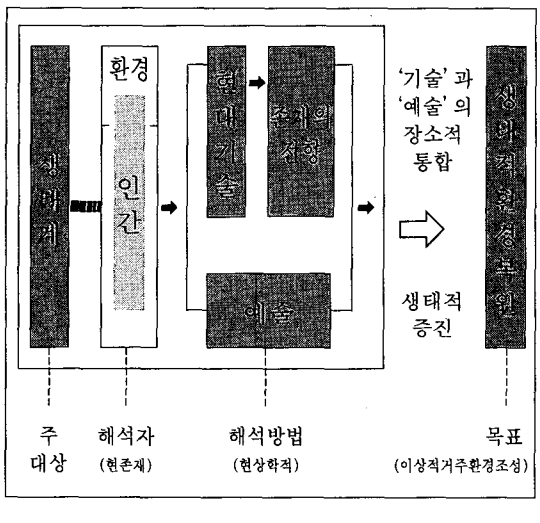
라고 언급했다. 과학적 접근만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 설계할 경우, 실제로 특정장소의 복잡한 자연현상이나 실제세계(real world)를 조작이 가능한 범위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비생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생태적 환경복원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 방법이 지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 이론가인 Norberg-Schulz의 단편적인 주장에서만 머무른다면, 현상학적 접근이 설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학자 하이데거로 들어가서 '현대기술'의 극복방안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찾아보아야 했다.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에서 이해되어질 수 없고, '예술의 본질' 역시 '예술적인 것'이라는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하이데거의 관점을 통해 찾아보았다. 우리는 실존주의자 하이데거가 밝힌 존재진리의 '사건'에 입각하여 '기술'과 '예술'의 본질을 현상학적으로 규명하였으며, 모든 존재는 '탈은폐'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대기술의 본질'은 '비은폐성'을 망각한 '몰아세움'으로 규명됨으로써, 그 극복을 위해서는 인간태도의 전환을 통해 '내맡김의 태도'와 '존재의 전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는 기술지배 시대에 주가 되는 심미적 태도를 극복하고, 존재진리의 발생적 차원인 '비은폐성(disclosure)'의 사건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이 경우, 예술은 "존재망각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전향의 가능성"[65]을 간직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하이데거의 관점을 통해 볼 때, '현대기술'과 '예술'의 통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몰아세움'으로 규정된 '현대기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 '부품'으로 활용하면서도 '숙고적 사유'를 통해 '내맡김의 태도'로 세계의 감추어진 의미에 눈과 귀를 여는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현대기술이 간과한 은닉의 측면까지 고려하는 '탈은폐' 방식을 통해 예술의 본질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로써 기술지배 시대에 있어서도 '기술'과 '예술'의 본질적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성과 예술성

63) Ⅲ장 1절, 생태적 환경복원의 정의 참조
64) Norberg-Schulz op.cit., p. 8.
65) 이기상, 위의 책, 411쪽에서 인용

이 현상학적으로 통합된 장소에는 장소의 총체적인 특성 파악으로 인해 장소와 관련된 생태적 원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예술성을 통해 은닉의 부분까지도 밝힘으로써 보이지 않는 의미까지 부여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오늘날 생태적 환경복원설계에서 조경의 위치를 찾아가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론적 전개와 사례를 통해, 초기화 모델인〈그림4〉에서 〈그림11〉과 같은 생태적 환경복원의 현상학적 접근에 관한 최종 개념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11〉 생태적 환경복원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의 최종 개념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대상지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자연생태계와 인간환경을 현상학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델로서 '현대기술'을 현상학적으로 극복하여 '예술'과 장소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인간'의 이상적 '거주'를 위해 "풍부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 개념도가 추구하는 바이다.

Ⅶ. 結論

오늘날의 생태적 환경복원설계는 대부분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생태계를 주대상으로 생태적 향상이라는 과제에만 주목표가 설정되어 과학기술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지배 시대인 오늘날 이러한 방법론은 몹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상학적 측면에서 볼 때, 생태적 환경복원은 대상지 즉,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주된 '목표'는 "인간에게 보다 이상적인 '거주'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학적으로 풍부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상학은 인간의 현존기반인 장소를 중심으로 거주개념을 제공하였으며 자연생태계의 총체적인 모습에 관심을 둠으로써 과학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상학적 접근이 보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현상학의 보다 본질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과학적, 실증주의적 접근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관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첫째, '기술의 본질'에 충실한 상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기술의 본질'은,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예술의 본질'과도 같은 '탈은폐'라고 한다. 과학 기술이 지배적이지 않았던 시대에 '기술'은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이 지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기술의 본질'은 이미 설자리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술 지배의 시대적 상황에 끌려 다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자연 생태계를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단일하고 기능적인 용도로 몰아세우는 현대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예술의 경우에도 그 본질적 측면은 멀리하고,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것만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오늘날의 한계들을 극복하려면, 바로 '기술의 본질'과 다른 '현대기술의 본질'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측면만 고려할 때 현상학적 주장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잃었던 이유는, 오늘날의 상황인 두 번째의 단계에서 기술이 지배되지 않았던 상황인 첫 번째 단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거나, 두 가지 측면이 상호 이원화된 원리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보완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셋째, '현대기술의 본질'을 현상학적으로 극복하여 자연 생태계를 총체적으로 보면서도, 현대기술의 분석적 측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즉, 장소의 복잡한 자연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옴으로 간과된 것들을 본질적 사유단계-하이데거가 언급한 '숙고적 사유'와 같은-를 거쳐 총체적으로 체험함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적 분석을 장소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기술'을 현상학적으로 극복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생태적인 데이터들을 '예술의 본질'과 접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을 통해 오늘날의 조경가는 특정 장소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의 존재의미를 통합적으로 읽고 공간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철학적 터널을 지나면서 얻은, 생태적 환경복원의 현상학적 접근에 관한 본 논문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총체적 시각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상지의 자연생태계를 분석적으로 '쪼개기 전'[66]에,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해 자연 생태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깨진 항아리-자연 생태계와 환경-를 복원하려면, 전체적인 시각-현상학적 접근처럼-에서 재배열하면서, 각각 조각의 특성과 위치를 찾아 접합하는 것-과학 기술적 접근처럼-이 효율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학이 총체적이며 정성적 특성을 갖는다면, 과학적 접근은 분석적이고 정량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현상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장소를 읽는 눈'이 열려 있어야하며 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흔히 '영감(inspiration)' 또는 직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애매함'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 환경이나 교육 등에서 실증주의식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 보다 훌륭한 가치를 지닌 작품-예를 들어 건축가 '까를로 스까르빠'나 '루이스 칸'의 작품 등-은 얼마든지 있다. 현상학은 본질 추구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이 진정 환경분야에 정착되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열린 눈'이 훈련되지 않고서는 현상학 자체가 우리들에게 버거운 의미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으로 하고 본고에서는 사유적 측면만으로 만족해야겠다.

參考文獻

김광현 역(1985), 『실존 · 공간 · 건축』, 서울:태림 문화사

김귀곤(1997), 『도시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생물 서식공간 조성기술의 개발』, 연구보고

박이문(1977), 『현상학과 분석철학』, 서울:일조각

박종화(1996), 『댐 및 하구둑 환경정비계획』, 학술용역보고, (대전:한국수자원공사)

변우일(1994), 『조경설계론』, 경기도: 동별당: 21-46

이규목(1988),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방법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35-45.

이기상 (1996), "존재진리의 발생사건에서 본 기술과 예술", 『하이데거 철학의 근본 문제』, 서울: 철학과 현실사: 384-411

이선일(1995), "기술의 본질과 극복", 『하이데거의 존재사유』, 서울: 철학과 현실사: 295-334

임승빈(1994), 『경관분석론』,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75-178

_____(1988), "경관분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6(1): 43-51.

종로서적 편집부(1993), 『철학 소사전』, 서울: 종로서적: 227-228

최기수(1989), "한국 경관 의미에서 조명해 본 한국의 전통경관: 曲과 景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7(2):57-68.

홍성하(1996), "풍수지리에서 나타난 대지개념에 대한 현상학적인 고찰", 『현상학과 한국사상』, 서울: 철학과 현실사:257-288.

66) 반면에, 기존의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보완하는 현상학적 접근은 이미 과학적으로 '쪼개진 자연'을 현상학적으로 보는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다.

Beardsley, John(1996), "Entropy and the New Landscapes", *Process: Architecture*, Vol.128. pp.14-28

Byeon, Wooil et al.(1991), *Chatsworth Ecological Planning*, A Report to 501 Studio, led by Ian McHarg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501 Studio: 1-60.

Heidegger, Martin(1977),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Basic Writings*, edited by J. Glenn Gray, New York:HarperCollins Publishers: 283-317.

_____(1971), "The Origin of the Work of Art",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 by Albert Hofstadter, New York: Harper and Row: 17-81.

_____(1971), "…Poetically Man Dwells …",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 by Albert Hofstadter, New York: Harper and Row: 213-229.

_____(1977), "On the Essence of Truth", *Basic Writings*, edited by J. Glenn Gray, New York:Harper Collins Publishers: 113-141.

Hobbs, R.J. & Norton, D.A.(1996),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toration Ecology", *Restoration Ecology*, June 1996, Blackwell Sci. Inc.: 93-110.

Jordan, W.R., Ⅲ.(1994), "Sunflower Forest", *Beyond Preservation: Restoring and Inventing Landscap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17-34.

Koh, Jusuck(1988), "An Ecological Aesthetic", *Landscape Journal 2*, Madison:the U. of Wisconsin Press: 177-191.

Loucks, O. L. (1994), "Art and Insight in remnant Native Ecosystem", *Beyond Preservation: Restoring and Inventing Landscap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127-135.

Matilsky, Barbara C.(1992), *Fragile Ecologies: Artists' Interpretations and Solutions*,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McHarg, Ian L.(1971), *Design with Nature*, New York: Doubleday/ Natural History Press.

Norberg-Schulz, C.(1980),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 8.

Odum, Eugene, *Basic Ecology*, Philadelphia: Saunders College Publishing: 1.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Technology Exposed", *Landscape Architecture*, May 1992, pp. 38-49.

Tuan, Yi-Fu(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New Jersey: Prentice-Hall.

Werner Marx(1987), *Is There a Measure on Eart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3-17, 147-157

龜山 章(1993), "水邊の リハビリテ ションの 視點", 『水邊の Rehabilitation』, 東京: Soft Science, Inc.:

進士五十八(1992), "自然と都市の共生計劃", 『自然環境復元の技術』, 東京: 朝倉書店: 9-24.